

급물살 탄 전남·광주 통합…복잡해진 군소정당 지방선거 쟁법

선거구 광역화에 조직력 한계·인물난·단일화 압박 3중고 직면
유권자 관심 민주당에 쏠려…거대해진 선거판 전략 수정 불가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급물살을 타면서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역 군소정당의 쟁법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거구 광역화에 따른 조직력 한계와 인물난, 후보 단일화 압박 등 '3중고'에 직면하며 당의 명운을 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가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메가 이벤트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기존의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단 한 명의 수장을 뽑는 거대한 선거판이 열리게 된다.

이미 민주당 소속 유력 입지자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사·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복 행보를 보이며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통합 적임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지역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소정당들은 거대해진 선거판 앞에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가장 큰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심화다. 행정통합 이슈를 민주당이 선점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온통 민주당 경선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실시한 '광주전남통합단체장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선거일이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68.8%에 달했다.

10명 중 7명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통합 정국에서 군소정당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장 3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당초 '제2의 돌풍'을 목표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를 각각 공천할 계획이었다. 조국 대표가 직접 영입 인재를 물색하는 등 공을 들여왔으나, 통합이 성사될 경우 단 한 명의 후보만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국혁신당과 합당도 변수다. 혁신당 간판으로 지방의회 입성을 노리던 입지

자들 사이에서는 "출마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안태욱 광주시장위원장을 비롯해 7명이 광주시장 출마 의사를 내비쳤고,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전남지사 도전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행정통합 변수가 돌출하면서 중앙당 차원의 전략 공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늦추며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일단 '파이웨이'를 택했다. 이종욱 민주노동당 광주본부장이 예정대로 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든 예정이다.

하지만 통합이 확정될 경우 전남도당과 협의해 선거 운동 범위를 전남 전역으로 넓혀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

인물난도 심각하다. 진보당 관계자는 "통합으로 인해 지방의원 정수가 늘어난다 해도 당장 후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광주 지역구 23석 중 진보당 후보가 5명에 불과한 실정인데, 선거구가 확대된다고 해서 갑자기 경쟁력 있는 인재를 수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군소정당의 생존 능력을 검증하는 흑흑한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권 조선훈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자체가 민주당 주도로 흘러가고 있어 군소정당들이 정책적 목소리를 내거나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며 "전반적인 선거 구도는 기존의 거대 양당 중심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행정통합 국면에서 비례대표 확대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틈새를 공략하고, 당의 핵심 역량을 특정 지역이나 이슈에 집중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광주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광주시와 전남도 내 만 18세 이상 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통신문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2.5%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7.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각

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광주시장·광주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3일부터)을 위해 접수장을 설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분열보다 통합” “당·대권 욕망”…민주 커지는 합당 파열음

정청래 “당원들에게 길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과 합당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조기 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며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에 바피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도 “합당은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

군인 혁신당과의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며 “소모적인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 뒷받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강 최고위원은 2014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을 거론, “밀실 합의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사례를 반복하면 안 된다”며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청래 대표 측 인사인 문정복 최고위원이 반격에 나섰다.

문 최고위원은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는 게 민주당 가치이냐”며 “공개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합당 문제든, 무스 문제든 민주당의 운명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한다”며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수직적 정당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는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만,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원들의 토론 속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은 힘을 합치자는 것이고 분열은 힘을 빼자는 것”이라며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조국 “합당 밀약 없어…민주당 내부 이견 해소 기다리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밀약 의혹을 부정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아달라”며 “민주당 내부

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비전과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생산적인 논쟁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높은 정치의식과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 민주당의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018년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도 토지공개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며 “굽히지 않겠다.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창고 매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